

국토교통부, 쿠알라룸푸르와 도시 협력 강화

- 10일 쿠알라룸푸르 시장 만나 스마트시티 등 협력방안 논의 -
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10일(목) 오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(Maimunah Mohd Sharif) 쿠알라룸푸르 시장을 만나 한-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등 도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.
 - 이번 면담은 스마트라이프워크(10.10~10.12. 서울시 주최) 참석차 방한한 마이무나 시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.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K-City 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코타키나발루, 클랑 시(市)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등 양국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과제를 안내했다. 향후 스마트시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.
 - 이와 함께, 박 장관은 '19년 체결한 한-말 스마트시티 업무협약(MOU)과 관련하여 유효기간 연장 등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하며, 양국 간 협력 분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마이무나 시장과 개정 방향도 논의했다.
- 마이무나 시장은 과거 유엔-해비타트(UN-Habitat) 사무총장 재직 시절 국토부가 해비타트와 협력*하여 국제사회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을 언급하며, 앞으로도 국토부가 국제사회 도시·주거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.
 - * (협력사례) 개도국 국가도시계획 수립 지원사업(K-NUPP) 등 추진('17~)
- 박 장관은 “이번 면담을 계기로 한-말 도시 협력 기반을 강화할 것이며,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 부분에서 활발하게 교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2024. 10. 10.
국토교통부 대변인